지 상 법 석

"자신의 생명력 터득"

"참으로 건전한 정신은 불행을 당했을때 번뇌·허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전고투하며 끝내 이겨내는 의지입니다"

수록 단련되는 것이며, 이것을 생명의 자각이라 합니다. 이와같은 도리를 병든 인연을 의지해서 자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연과 인생을 바로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공덕입니다.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될 때 사람은 고독해지며 마음이 평상시보다 섬세하고 예민해지며 그것이 지나쳐서는 감상적이거나 신경질적으로 되어 생각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치 말고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일면인 것임을 알고 얼른 한생각 돌려야 합니다. 한 생각 돌이킬 때 병은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렇게되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산천 초목의 아름다움과 창가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에도 마음이 끌리게 되면서 구석 구석에까지 넘쳐 흐르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과 이웃들 그리고 간호해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셋째는 정성스럽게 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공덕입니다.

어려울 때 불교를 믿는 이들이 부처님을 의지함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평소에는 신앙에 대하여 생각치 않던 사람도 병들어 위기를 맞게 될 때에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병들면 의학을 믿고 의지함이 마땅하지만 의학이 아무리 발달 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완벽하게 보증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자신이 병들었을 때 뿐만 아니라 집안의 권속들이나, 그리고 친한 이나 이웃들이 병들었을 때, 의사를 신뢰하면서도 역시 기도하는 마음이 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의 이유를 따질 겨를도 없이 하게 되며, 기도하여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막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나의 참 마음이며, 부처님의 자비에 통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자비한 마음만 기도하는 마음을 압니다. 어느 종교나 종파의 교리로 설명되어지거나, 규정지어지기 이전의 이와같이 솔직한 기도하는 마음이야 말로 모든 종교의 근본이며, 신앙의 원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사랑 분별 따위로는 따져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병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공덕이라 하겠습니다.

옛부터 병으로 인하여 참된 신앙에 눈뜨게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죄악이 소멸되지 않는 한 신앙이 없어지지 않듯이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신앙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인간의 존속하는 한 생명을 아끼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애절한 싸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을 바로 돌려야 할 점은 흔히 병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대개 병이 신앙으로 해서 쾌유되었다는 효과가 따라 붙게 마련이지만 본래 생겼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이 몸에 들고 나고 하는 병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았거나 아니거나간에 관계없이 병을 인연하여 참된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으로 해서 비로소 바른 사람이 되었고 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아픔에 꺾이지 않는 청정한 마음가져야

한생각돌려 병든인연 되새기면 '자각의 길' 보여

참된 신앙과 미신이 갈라지는 점이 어딘가. 중생들이 대개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한 성현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회복이 되면 말짱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데, 병을 고치겠다는 거기에만 고집하게 될 때에 신앙은 공리성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갖 가지 여러 종교가 병이 꼭 낫는다는 실제적인 약속을 간판으로 내걸게 되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 보려고 함이 당연하니 모르는 새에 눈앞에 선전 효과에 끌려서 바른 것과 삿된 것을 가릴 겨를도 없이 시키는 대로 좋다는 기도와 용하다는 방법을 다 따르게 되며, 가진 재물을 다 바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사여래 부처님의 서원은 중생의 병을 고쳐주실 뿐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염원을 통해 대승의 가르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발등에 그 같은 불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미리 장담할 수 있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바라는 인간의 지극한 정을 살펴야 할 것이며 생명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교(邪教)나 미신(迷信)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이나 미신이나 역시 생사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동일한 바탕에서 생기는 것이면서도 거기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통의 경우 병이 들었을 때는 병 이외의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고 생각이 흔들려 갈피를 못잡을 때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기가 쉬워져서 병이 좀 오래 끌게 될 때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이 같은 분별 망상 때문이니 이런 경우에는 육체의 병보다 정신의 병이 더 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관점으로 볼 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온 생명을 재생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병을 육체상에 일어난 부분적인 현상으로 보게 된다면 고쳐줄수 있는 신앙과 의술이 다 공리적인데에 떨어지기 쉬운 까닭에 병은 어떻게 나았으나 앞으로 살아갈 기력은 잃었다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선고를 받고 비로소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이나마 힘껏 살아 보려고 결심한 사람도 많았으니 병상에 있으면서 후세에 남을 훌륭한 일을 남기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사여래본원공덕경'에 약사여래 부처님의 서원은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는 염원을 통해서 중생들이 대승의 깊은 가르침에 들게 함을 본원으로 삼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병을 인연으로 하여 인생의 일대사에 눈을 뜨도록 기원하여야 할 것이며, 각자가 자기 앞에 닥쳐온 생명의 위기를 통해서 커다란 참된 생명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최고의 기회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가까이 눈앞에 있음을 병든 사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병은 참나를 발견케 해 줄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50

양 형 진

진화의 증거

다윈은 1831년 탐험선 비이글 호를 타고 5년간의 항해를 하였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표본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경험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한 탐험이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쿠아도르 해안에서 정서방으로 1천km 정도 떨어진 고립된 섬이다. 그는 그 곳에 사는 동물들이 남미 대륙의 동물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르며, 서로 다른 서식지에서 먹이 경쟁을 하는 새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생물종이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 생각은 그후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었다. 다윈에서 시작된 진화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대단한 반발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론이 되었으며 인간의 세계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이론이 되었다. 진화론의 증거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해부학적인 증거를 들 수 있다. 다양한 포유류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두개골을 이루는 뼈의 수나 구조, 기능 등은 모두 같으며, 목뼈의 수는 기린과 같이 목이 긴 동물이나 사람과 같이 목이 짧은 동물이나 같다. 또한 새의 날개나 육상 포유류의 앞발, 고래의 앞 지느러미 등도 그 기본형은 같다. 이러한 예는 그들이 모두 같은 조상에서 유래하였으나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살면서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신체적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그들이 어떤 공통의 조상을 가졌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발생학적 증거를 들 수 있다. 어느 동물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단세포의 수정란에서 시작되는 여러 척추 동물의 발생 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처음에는 대단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가 발생이 진행되면서 각자의 특유한 형질이 갖추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조류나 포유류의 발생시 그들의 심장이 어류나 양서류의 심장 상태를 거친다든가, 말발굽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화석상에 나타나는 진화 역사상의 변화를 반복한다는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장이나, 동맥 등의 발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가리켜 개체 발생은 오랜 기간에 걸친 진화 과정 즉 계통 발생을 축소 반복한다고 말한다.

가장 결정적인 진화의 증거는 화석에서 발견된다. 가령 척추 동물의 경우 지층 연대별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에서와 같이, 오래된 지층에서는 오직 하등 동물의 화석 만이 나오며 새로운 지층으로 가면서 고등 동물의 화석이 나온다. 그리고 현존하는 생물들의 중간종이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 화석으로 나오기도 한다. 가령 지금의 조류와 파충류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시조새는 현재의 조류와 파충류가 쥬라기 시대의 공통의 조상에서 분리되어 각자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는 200여종의 말의 화석은 말발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현재와 같이 발가락 하나만이 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생물 발생·계통 과정 화석통해 확인가능

아미노산 분자배열 가까운 種끼리 비슷

생물을 분자 수준에서 관찰하여 볼 때 비슷한 생물종이란 DNA의 염기 배열이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이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진화의 계통을 분자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진화에 대한 생화학적 혹은 분자생물학적 증거가 된다. 가령 척추 동물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분자의 배열 순서는 가까운 종에서는 비슷하고 먼 종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생화학적 분석에 의하면 어떤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분자 하나가 다른 것으로 치환되는 데에는 약 600만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람과 말의 헤모글로빈 분자의 아미노산 배열은 18곳에서 차이가 나므로 사람과 말의 공통의 조상은 약 1억년 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산소 호흡을 하는 동물의 전자전달계인 씨토크롬C 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포유류와 다랑어의 공통의 조상은 4억년 전에 존재했으며, 척추 동물과 효모의 공통의 조상은 20억년 전에 존재했다고 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水子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 (죄업소멸 복덕증장) 봉행

떠도는 어린 넋들을 위하여
수자지장보살을 봉안하고 수자 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염불행자들의 염불정진을 위한 제5차 백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미타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장수멸죄경 ②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③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④ 백일기도를 위한 일일수행법과 수자영가축원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일 시: 1995년 12월 7일(입재) ~ 1996년 3월 4일(회향)
■동참회비: 기도금(3만원) 영가위패 1인당(5천원)
■온라인: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장)
■연락처: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546-840) 전화 (0694) 52-1755 팩스 (0694) 53-0009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釋玄藏 합장

불기 2540년(丙子年)

신년 축하 광고 안내

다사다난 했던 을해년을 보내면서 새삼 삼보의 가르침에 두손모아 공경을 표합니다.
본지는 불기 2540년(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 하는 광고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한해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신년축하광고
■접수마감: 95년 12월 16일
■규격 및 단가
1) 종단 : 가로 9cm×세로 17cm 기준, 25만원
2) 본사 : 가로 8.5cm×세로 6cm 기준, 15만원
3) 말사 : 가로 7cm×세로 4cm 기준, 5만원
4) 불교관련업체 : 위 규격기준, 선택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광고국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 FAX (02) 737-0697